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5+6  
MAY + JUN  
2026 vol.41

특집

##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사람 사이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

청년 시론 덕분에,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상 보기 17세기 네덜란드 가정 교육의 시각적 발현

ISSN 2671-8731

# Contents

MAY + JUNE · 2026

## 시선

교육자의 모범이 중요하다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 신국원 04

## 특집

###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서 출발하자 | 정병오 06

기독교 세계관, 질문과 틀 그리고 은혜 | 정석원 08

친밀하게, 치열하게! | 박영주 10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 | 유경상 12

다중사회화 시대, 자녀들의 세계관 교육 | 김보경 14

AI 시대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크리스천 코칭의 통합적 접근 | 정희정 16

생각을 빼앗긴 시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신미영

기독교대학교를 통한, 18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 | 장슬기 20

전인격적인 돌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 조지혜 22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 지상선 24

## 사람 사이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 26

## 섬김의 자리에서

AI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훑어보기 | 박동열 30



2026. 5+6월호 | 제41호(통권 256호)

###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 청년 시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이끄실 하나님의 사랑   최현준	32
덕분에,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34
<b>청년 일터 이야기</b>	
주일학교의 위기 앞에서, 다시 사랑을 생각하다   김영주	36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 그 사이에서   김경훈	38

## 문화로 세상 보기

<b>영화를 보다</b>	
옷장 문을 열면 시작되는 세계관 교육   추태화	40
<b>미술을 보다</b>	
17세기 네덜란드 가정 교육의 시각적 발현   서성록	42
<b>책을 보다</b>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곱 가지 삶   석종준	44
'?'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김아영	46



## 교회 路

### 원남교회 금요성령집회 소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젊은 세대   정경철	48
소감문 : 의무를 넘어 사랑의 초대로   김혜인	49

## 온전한 지성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부자(父子)의 성경적 세계관(1)   최용준	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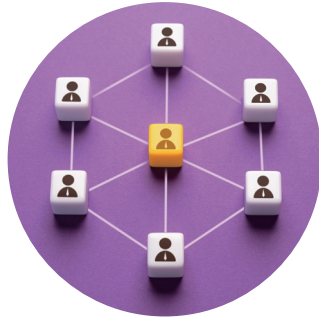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 교육자의 모범이 중요하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종교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지혜나 인류의 집합지성이라 할 수 있는 역사도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반드시 배워야 알 수 있고 믿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훈’(Didache)이나 ‘문답식 교리교육’(Catechismus)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믿음의 교육 외에 신자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부터를 잘 알지 못한다. 우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이 어

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없다. 거기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면 교육자 자신과 피교육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하며,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

비록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세계관과 그 약점을 다 안다 해도,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피교육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생활하려면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어디에도 기독교 세계관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곳이 없으므로 본받을 만한 모범이 없다. 그러므로 전통문화가 기독교와는 무관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그 자녀들이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임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 몇몇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성공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그나마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 가정들 다수가 그런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교육 기관들이 나서서 조금씩이라도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시도해야 하는데, 교회들도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의의를 알게 된 소수의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특별히 어렵게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모든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현대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어떤 이론도 자연과학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성, 정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 것은 없었고, 그것을 적용한 과학기술만큼 큰 물리적 힘을 생산한 것도 없었다. 최근에는 AI까지 등장해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과학은 현대인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전제인 창조, 타락, 구속은 이런 현대 자연과학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는 모든 교육자, 목회자, 부모들은 자연과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라도 알아야 하게 되었다. 특히 그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그 지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의 위험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과학사나 과학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아니더라도 포퍼(Karl Popper)의 반증 이론,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 패러다임, 호이카스(Reijer

Hooykaas)의 근대과학 출현에 공헌한 종교개혁 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아둬서 자연과학의 우상화를 비판할 할 수 있어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성경, 자연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그 확신이 일상적인 행동과 삶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가능하다. 최근 한국 교회가 사회의 신임을 잃고 젊은이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약점은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어렵게 하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는 치명적이다.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자연과학과 현대 사회의 세계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교육자가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으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성경의 가르침에 참되게 충실하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실천에 바치려면 우리와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시도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여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인격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아동,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주제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을 다양한 현장과 이론, 실천을 놓고 함께 성찰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시선>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총체적 신앙 형성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특집>에서 정병오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쟁과 불안이 지배하는 교육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의 실제 삶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정석원 목사님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다시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 교육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주 교수님은 자녀 교육을 둘러싼 부모들의 부담과 혼란에 대한 해답이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는 일상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적 소통과 노력이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유경상 교수님은 오늘날 신앙 전수의 위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살아내는 믿음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교리 전달이 아니라 세계관 형성이며, 그 책임은 부모의 삶과 영적 회복, 대화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김보경 교수님은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감점과 욕망을 자극하며 세계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구조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런 환경 속에서 주체적

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정희정 교수님은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와 가치 판단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삶을 해석하는 틀을 주는 질문과 성찰, 관계 중심의 ‘코칭’을 통해 신앙의 내면화를 도울 것을 제안합니다. 신미영 전도사님도 교회가 ‘아이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할 때,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해야 할 사명을 강조합니다. 대안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육해 오신 장슬기 선생님은 한국교회의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바로 펼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설 새로운 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조지혜 교수님은 청소년의 신앙은 가정, 학교,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자라나기에, 작은 헌신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역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 돌봄과 실천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상선 소장님은 아동문학과 교육의 본질이 “어떤 세계관을 형성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형성되기에, 성경적 렌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읽어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의

봄'을 통해 한국교육의 개혁을 위해 애써 오신 송인수 선생님과 함께 입시 경쟁과 학벌 중심 구조가 아이들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왜곡하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다움의 회복'과 '관계 속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새로 학회장을 맡으신 박동열 교수님은 자크 엘릴의 사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한 철학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사회와 기술 변화 속에서 실제 제자도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 시론>의 최현준 형제는 신앙의 본질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식이나 성취보다 사랑과 증언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나눕니다. 또한 이해란 자매는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신앙 교육의 핵심이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 신뢰와 진심, 격려와 기도임을 경험하며,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청년 일터 이야기>의 김영주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사역이 즉각적 성과가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인내와 사랑의 축적이며, 어린 시절 경험한 교회의 사랑이 신앙 회복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합니다. 김경훈 팀장님은 일터에서 성과 중심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선택으로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과 결단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복음의 핵심인 죄, 대속, 부활, 회개, 공동체를 이야기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세계관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17세기 네덜란드의 '가정-학교-교회' 통합 구조를 통해 신앙이 일상 속 습관으로 내면화되었던 역사적 모델을 소개하며, 오늘날 교육도 가정을 '작은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책

을 보다>에서 석종준 선교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곱 가지 삶>을 소개합니다. 김아영 전도사님은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질문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계관 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유경상 교수의 저서를 소개합니다.

<교회로>에서는 정경철 목사님은 김혜인 팀장과 함께 원남교회 금요성령집회를 소개하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며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깊은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지성>에서 최우준 교수님은 독일의 보텔슈빙 부자의 사역과 벨엘 재단의 사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 존엄, 노동, 고난, 이웃 사랑,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원리 속에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반세기에 다가갑니다. 이번 호에 담긴 글들은 모두 신앙은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고, 교육은 그것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글을 나누어 주신 모든 필자님들과 늘 함께 수고한 편집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여정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서 출발하자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오딧세이학교 교사)

교육은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교육 대상인 아동 청소년이 어떻게 배우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내용을 내면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어떻게 배우는가? 학습자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며 백지상태에서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는 어떤 상황에 있고 자기 나름의 경험과 선이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든 학습자의 상황과 경험, 선이해와 맞닿아야만 배움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은 가르침은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허공을 치게 된다. 이는 신앙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고민한다면 먼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 지금 교회에 속한 혹은 교회를 잠시 떠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는 부모 세대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몇 등이나 하

는 것이 핵심 질문이다.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정해진 시험 범위 내용을 반복해서 외워야 한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또 풀어야 한다. 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 일인가! 그러기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를 잃게 되고 공부가 재미없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게 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다른 친구가 자신을 앞지를까 봐 불안에 짓눌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면 열등감과 좌절감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상황은 배움의 기쁨을 앗아갈 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무한 경쟁 체제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을 평가하는 자이고 친구인 이 경쟁자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약화되고 학교폭력과 왕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더군다나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이 아닌 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주 작은 갈등도 신고의 대상이 되고 소송이 난무하면서 교육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차이를 수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가면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관계 맺기에 머물거나 관계에 대한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표면적으로 상습 자해, 자살 시도 학생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직접 이런 위기 상황을 겪지 않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위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핵가족 및 핵개인 시대, 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연결 방법의 변화와 단절, 풍요와 소비 세대의 이면 등이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안전한 공동체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 교육 혹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아이들 가운데 배움을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앙 교육이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주입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교육을 연상시키고 아이들의 거부감을 산다. 물론 아이들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식에 머물고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앙이든 기독교 세계관이든 아이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보고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을 던지게 하거나 혹은 교사가 질문을 던져 생각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혹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진리에 곧바로 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나 가치관과 연결되는 방식이고 나아가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의 풍성함에 닿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이론이 아니라 삶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어른이나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이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선배들과 많이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실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낼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이때 좀 더 체계화된 이론을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로 배우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와 심리적인 위기는 신앙 교육 혹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생활을 같이하면서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자신이 온전히 수용되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와 가치관이 스며들게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관계와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이에 미숙하고 잘 스며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공동체의 맛을 많이 보여주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와 미자립 교회 가운데 방치된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회나 교회 연합 차원에서 주말학교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이다.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이사장,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용을 위한 길 찾기 과정인 오디세이학교 교사, 주님의보배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 기독교 세계관, 질문과 틀 그리고 은혜

정석원 (오늘의교회 담임목사)



## 한 중학생의 질문

“제가 그리스도인인 건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 아닐까요?” 모태신앙인 중학생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필자는 잠시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이 아이는 교회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 질문도 불신앙이 아니었다. 자기 삶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몰라서 던진 정직한 신앙의 질문이었다. 필자는 다음 세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메모해 둔다. 이 글들을 모아놓고 보면, 거기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경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해석의 틀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디어와 또래 문화와 자기감정이라는 점이다.

## 우리는 답과 함께 해석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정답’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 왔던 것 같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틀린 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자기 삶을 그 정답의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결국 이 차이를 메우는 일이다. 세계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아이들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정답이 아니다. 자기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곧 해석의 틀이다. ‘창조-타락-구원-회복’이라는 성경의 거대한 서사 안에서, ‘나’라는 작은 이야기가 읽힐 때 비로소 방향이 생긴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교리는 전달하지만, 그 교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과 삶의 유격을 더 키울 수 있다.

###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회 밖에서 더 절실하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논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이 교육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세계관은 주일 한 시간이 아니라, 주중의 나머지 시간에 형성된다. 학교에서, 유튜브 앞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가정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첫 번째 현장이다. 부모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뉴스를 보며 어떤 해석을 내놓는가, 어려운 이웃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세계관을 전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 본인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을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직접 기독교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와 미디어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 안에는 세계관이 녹아 있다.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이야기들이 매력적인 포장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AI 시대가 더해지면서, 아이들은 질문하기 전에 답을 먼저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스스로 성찰하고 분별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근력을 길러 주는 일이어야 한다.

### 은혜가 해석의 열쇠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가. 필자는 ‘은혜’라고 답하고 싶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결국 은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가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적이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기 삶의 고통을 버림받음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논증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들려주는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고, 이것이 은혜의 언어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 삶을 읽을 수 있는 눈이다. 그리고 그 눈을 여는 열쇠는 은혜다. 아이들의 질문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거기서부터 이 교육은 시작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석원

동탄에 소재한 오늘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장로교 합동 총회에서 교육을 담당했다. 저서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 다시 성경을 찾아줘>(홍성사),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디자인하다>(공저, 익투스) 등이 있다.

# 친밀하게, 치열하게!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대학교 교수)



2년 전쯤 교회 학부모 세미나에 초청받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를 세운 모 교회로부터 자녀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이 주제로 강의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어서 큰 부담이 없이 오랜만에 옛 직장이었던 곳을 찾았다. 그런데 안 내받아 들어간 강의실은 온돌방이었고, 그 안에는 두 세 살 정도 된 아가들이 온갖 귀여운 괴성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강충거리고, 웃고 울고 한 마디로 난리였다. 게다가 강의를 듣겠다고 바닥에 웅기충기 앉아 있던 학부모들은 예상보다 너무 젊었다. 그중 몇 명은 별떡 일어나더니 내게 안기까지 했다. “교장 선생님~!” 정신을 차려보니 내 제자들이었다. “세상에!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진로지도를 하라구요?” 그때에서야, 나는 초청한 전도사님에게 원망스러운 구조신호를 보냈지만, 그분은 마침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아가들을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 간 강의 자료들이 이미 소용이 없다고 느꼈다. “그저 어떻게든 90분을 버텨야 한다.” 잠시 심호흡을 한 다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다. “어떤 강

의를 기대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진로를 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한 아기 엄마가 용기를 냈다.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 신앙인들과 함께 별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저희 자랄 때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두려워요.”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로드맵 같은 걸 그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서로의 대화는 이어졌다. 귀엽고 뽕뽕뽕뽕하던 제자들이 어느새 자라 꼭 자기들을 꼭 닮은 예쁜 아기들을 안고 내게 물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젊은 부모들과 함께 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로를 고민했다.

그동안 나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자이며, 교사와 동역하는 존재라고 믿고 그렇게 예비 교사들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가지는 혼란과 부담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젊은 학부모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전을 받았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한다.”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알고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내 세대가 성장하던 시절과 달리 교회와 기독교 학교 등에서 다양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과 앎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실천에 대한 갈증과 혼란을 경험한다.

30-40대 젊은 부모들이 매 순간 직면하는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그들을 붙잡고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고비 고비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나 역시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고민하는 질문들이기에 감히 정답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제자들의 아이들에게, 게다가 내 큰조카도 곧 아이를 출산할 테니, 할머니로서 귀한 손주에게 뭘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제법 심각한 고민을 하는 중이다. 올해부터 몇 교회와 함께 어렵פות한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로 기독교 가치관을 세워갈 책 대화”라고나 해야 할까? 아직 구체적인 타이틀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과일통 형태, 즉 예비적으로 미리 준비한 형태의 세미나를 3-4주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단순한 활동이다. 먼저 2주간 부모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1-2주는 아이와 함께 세미나에 참여해서 독후 활동을 한다. 예를 들자면 톨스토이의 단편 우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같이 읽고 등장인물과 상황들에 대한 세계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 아이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동화나 비문학 책 속에서, 하나님이의

도하신 창조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완벽한 모습은 어떻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금까지 안산과 전주의 두 교회에서 실시했는데, 자녀들이 생각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고무되기도 했다.

내 역할은 약간의 틀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젊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찢해 온다. 기독교 신앙은 책, 설교, 교육보다 먼저 친밀한 관계 속에 삶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의도적인 틀과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신앙을 지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대적 마귀에게 잠식당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젊은 부모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담아 이런 구호를 선창해 본다. “친밀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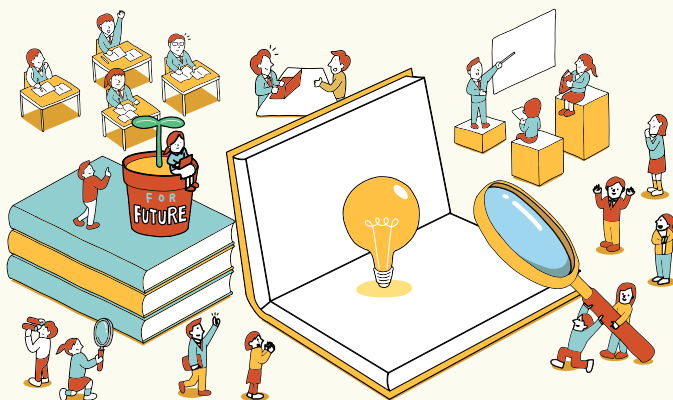


 글쓰기 박영주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다. 미국 컬럼비아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전(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

유경상 (CTC 대표, 평택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MTS 책임교수)



오늘날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며, 안정된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부모 세대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한다.

“우리의 자녀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외형은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다른 세대로 형성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성경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이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한 세대의 소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전수가 단절될 때 공동체 전체가 마주할 영적 암흑기를 예고하는 뼈아픈 경고이다. 물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한국 교회를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행하심이 다음 세대 안에 살아 있는 기억과 삶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못할 때,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경이 말하는 비극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 세대’란 부모 세대의 신앙 전통을 외형적으로 계승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세대’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종교

적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실제 삶의 판단과 가치 형성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배제된 세대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많은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욕망, 꿈과 기준은 이미 다른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 교회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영상 매체, SNS, 또래 문화, 소비문화는 끊임없이 자녀의 마음에 메시지를 새긴다. 예를 들어 “네 마음이 곧 진리다”라는 감정중심주의, “네 가치는 성취로 증명된다”라는 성과중심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물질주의는 오늘의 자녀들이 매일 같이 학습하는 대표적인 세계관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의 마음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말씀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세대 교육은 단순한 종교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세계관 형성’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 인간, 세상, 진리, 행복, 성공 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 해석 틀이다. 자녀의 삶은 이 해석 틀 위에서 세워진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의 배후에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핵심은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자녀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모양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 형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부모가 신앙 교육의 해답을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뛰어난 교사, 더 효과적인 캠프와 콘텐츠에서 찾으려 한다. 물론 이러한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자

녀 신앙 형성의 일차적 책임을 언제나 부모에게 두고 있다.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신앙의 텍스트는 부모의 삶이다. 자녀는 부모가 입으로 말하는 내용보다, 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삶의 위기 순간에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지를 보며 신앙을 배운다. 부모가 성공과 경쟁의 논리에 매몰되어 살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가르칠 때,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이 뿜어내는 메시지를 더 진실하게 받아들인다. 결국 부모는 교육의 보조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 형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먼저 부모 자신의 영적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삶의 기준이 성공에서 소명으로 옮겨갈 때 자녀의 영적 토양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다음 세대는 단순히 다음 순서에 오는 연령 집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세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의 시작은 곧 부모이다. 결국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더 많은 투자 이전에, 부모 자신의 더 깊은 각성과 회복이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기도와 삶,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그 출발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묻고 경청하는 작은 대화일지 모른다. **FAITH & LIFE**



#### ✍ 글쓴이 유경상

CTC 대표이자 평택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MTS 책임교수이다. 벤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 박사과정(Ph.D)에서 공부했다. 2007년 ‘기독교 세계관훈련센터’(CTC)를 설립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크리스천 씽킹>,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등이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 다중사회화 시대, 자녀들의 세계관 교육

김보경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반 사회가 되면서 ‘세계관’이란 용어는 신학과 철학을 넘어 문학, 영화, 게임 콘텐츠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세계관을 설정하고 내러티브를 이어간다. 게임에는 저마다 다른 세계관이 설정되어 있다. 아이들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각 그룹마다 세계관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 스토리, 멤버들의 캐릭터, 상징들이 모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 12세 이상 관람가인 마블(Marvel)류의 영화는 멀티버스라는 거대한 평행우주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데, 개봉만 되면 전 세계적 흥행을 담보한다. 얼핏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

##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중학생 딸이 영영 울면서 하교한 적이 있다. 아이를

위로하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엄마가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라는 서두를 붙인 후, 자신이 ‘파고 있는’(열정적으로 좋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다는 의미) 아이돌의 한 멤버가 탈퇴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순간 이 아이가 어제 밤 나와 함께 열왕기사를 읽으며 솔로몬 이야기를 재밌게 나눈 그 딸이 맞나 싶었다. 갑작스런 비매칭 타격에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일찍 퇴근한 덕분에 우는 아이를 곁에서 맞이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엄마가 싫어할 것이라는 전제에도 솔직하게 말해준 딸에게도 고마웠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Adolescence)은 현대 청소년들이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두 세계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가정과 SNS의 알고리즘에서 형성되는 두 정체성은 매칭되지 않는 전혀 다른 두 인격처럼 분리되어 있다. 부모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가치관을 흡수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아이가 살인까지 하게 된 후에야 아이를 키운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SNS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의 다음 세대가 직면한 ‘다중사회화’(multi socialization)의 현실이다.

### 디지털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여러 개의 세계관 속에서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비매칭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첫 번째 반응은 스마트폰 사용금지이다. 필자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늦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단과 금지가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오히려 부모가 모르는 영역을 더 넓혀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디지털 공간을 금지가 아닌 동행의 영역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곳도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므로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비유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막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고 하셨다. 자녀가 보는 유튜브 채널, 게임, 인플루언서,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면서 “네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 같니?”, “이 게임의 세계관을 설명해 줄래?” 등의 세계관적 대화를 시도해 보면 좋겠다.

### 알고리즘을 이기는 분별력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 플랫폼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분노, 불안,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주의력을 확보하여 트래픽을 늘리고 데이터와 자본을 독점하는 ‘주의 경

제학’(attention economics) 구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계에 노출된다면, 그것은 아이를 갑옷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였다(롬 12:2). 디지털 시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영적 훈련에서 그치면 안 된다.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인식의 능동적 재구성까지 해내야 한다. 아이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metacognition),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며,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도 가르쳐야 한다. “이 영상은 너에게 왜 추천됐을까?”, “이 콘텐츠는 너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가?”를 자녀들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분별력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다중사회화’의 시대에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세계관 교육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게임 속이든 SNS든 아이돌의 세계든지 그곳에서 부모와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주의 경제학’으로 달려드는 콘텐츠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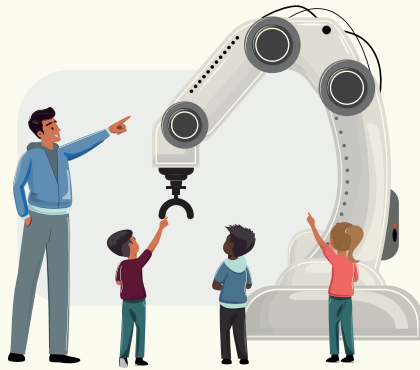


 글쓴이 김보경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다(2009~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 학사, 동대학에서 교육공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학교 교육, 학부모 교육이며 주요 저서로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 있다. 대 전산성교회 권사로 부모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 AI 시대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크리스천 코칭의 통합적 접근

정희정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코칭심리전공 교수)



오늘날 아동·청소년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지식 습득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 구조와 관계 형성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졌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오늘날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단순한 신앙 지식의 전달차원을 넘어,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적 틀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근본적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과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인식 체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

닌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탐색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AI 시대의 청소년은 외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학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주체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은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아동·청소년 신앙교육은 여전히 교회 중심의 전달식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삶은 가정, 학교, 또래 관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다층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AI 기반 미디어 환경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교육적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때때로 신앙은 삶과 분리된 영역

으로 인식되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칭(coaching)에 대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코칭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대화 중심의 상호과정이다. 특히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 가치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의 삶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신앙적 동반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성과 향상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I 시대에 이러한 코칭적 접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인간 존재의 의미나 가치, 그리고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기가 제한이 된다. 따라서 교육은 점점 더 '지식 전달'에서 '의미 탐색'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코칭은 핵심적인 교육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AI를 통해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재구성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전달보다 질문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더욱 효과적이다. 크리스천 코칭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다루도록 돕는다. 이러한 질문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서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다. 이와 같은 성찰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은 신앙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의 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크리스천 코칭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연

결은 증가했지만, 실제적인 관계 경험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코칭은 공감과 경청, 수용을 기반으로 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토대가 되며, 공동체적 신앙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AI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회 중심의 교육을 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모가 신앙의 모델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교회는 코칭적 접근을 활용한 교육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며,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설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설명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AI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며, 크리스천 코칭은 이러한 진리를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통로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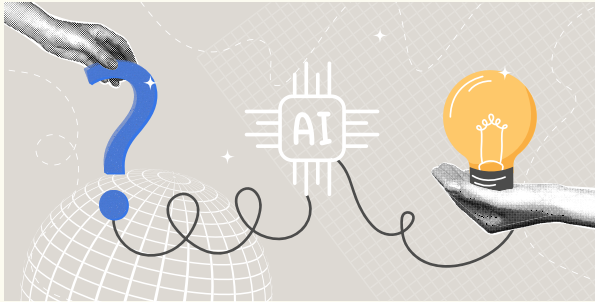
#### 글쓴이 정희정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코칭심리전공 교수이자 아동청소년복지(문학박사)와 상담코칭(심리학박사)을 전공한 코칭전문가이다.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회복과 기독교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코칭 및 상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위원 및 여성가족부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매뉴얼 및 보건복지부 콜로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급격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성경적 기초 위에 올바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와 코칭심리학을 통합한 크리스천코칭리더십 전파에 힘쓰고 있다.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다.

# 생각을 빼앗긴 시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신미영 (대구 대현교회 유초등부 전도사)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와 함께 인간의 사고 형성과 가치 판단의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은 다음 세대의 인식과 선택에 깊숙이 개입하며, 세계관 형성의 주도권을 교육기관에서 플랫폼과 문화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시대 아이들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교육,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전제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는 감각적 몰입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와 욕망, 판단 기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네가 옳으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상대주의적 사고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전제하는 절대적 진리 개념과 근본적인 긴장을 형성한다.

지금엔 교육 방법이 위기인 시대라기보다, “누가 다음 세대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만약 교회가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사고와 삶은 다른 가

치체계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선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명이다.

필자가 다음 세대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문을 두드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열린 시점부터였다. 당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대안을 고심하던 중 ‘CTC기독교 세계관교육센터’를 만나게 되었고, 강사 과정까지 꾸준히 훈련받아 현장에 바로 적용했다. 대형 교회 사역 시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이 뭐예요?>, <미디어가 뭐예요?>라는 교재로 진행한 수업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미디어 절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UCC를 제작하고 실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방향이 삶의 습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사역 중인 교회는 도시의 소형교회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진행했다. 수업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비교하며 사고를 확장해 나갔다. 이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과 역할극, 만들기 등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를 오감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과제를 수행한 후 인증샷과 점검표를 기록하는 반복적 습관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언어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비록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짧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된 환경에 있지만, 교회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때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일부 아이들은 타지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삶의 방향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부족하게나마 필자가 경험한 사역 현장은 시대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시대를 막론하고, 사고를 훈련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 통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아동기는 인지적 틀이 형성되고 가치체계가 내면화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세계관은 이후 삶의 방향성과 해석의 기준을 좌우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교회교육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 전달’에서 ‘세계

관 형성’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과 토론, 그리고 사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부모와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통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회는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가정에서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성패는 결국 부모 세대의 신앙 회복과 가정 안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문화화’와 직결되어 있다.

셋째,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대안적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더 의미 있고 즐거우며, 관계와 성장이 살아 있는 경험의 장이 될 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에 나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교육 지도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가정, 또래 관계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진리’ 전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이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대이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때, 충실한 제사장 같은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 FAITH & LIFE



#### ✍ 글쓴이 신미영

대구 대현교회 유초등부 전도사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영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했고,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육디렉터를 역임했다.

# 기독교대안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장슬기 (별무리학교 과학교사)

## 미션스쿨의 한계에 부딪히다

대학 시절 접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인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과 프란시스 웨퍼의 저작들은 허무주의에 빠졌던 나를 ‘완전한 진리’로 향하게 했고, 지성적으로 세계관이 거둬나도록 기초를 세워 주었다.

1995년, 스물다섯 살. 미션스쿨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던 당시, 세 가지의 서원 기도를 드렸다. “주님! 성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도를 가르치며, 과학 수업 시간에 바른 창조론적 견해를 가르치고, 왜곡된 세계관을 심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성경적 관점으로 비평하는 문화 사역을 하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드린 대로 15년을 살아내며, 당시 기독교 교육계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미미하던 시절, 미션스쿨 안에서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실천하고자 애써 왔다. 수업 시간에는 ‘창조론-진화론’ 토론 수업을 도입했고, 연구회를 조직해 서울대 지적설계연구회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창조진화저널>을 발간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들이 극소수였지만, 교내 여러 교사들과 함께 기독교적 수업모형을 연구하고 수업계획을 구성해 보기도 했다.

오랜 시간 미션스쿨에서 근무하며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학교의 교육적 지향이 교과를 통한 성경적 가르침

이 아니라 ‘신앙심 있는 명문대 진학생 양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졌다. 과연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과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기독교 교육의 전부일까? 지식적 차원을 넘어, “학교의 모든 영역 즉 행정 업무, 동아리 운영, 각종 대회 출전, 진학·진로 지도, 대외 교육 운동 등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맡겨진 모든 교육영역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힘썼다. 그 치열한 몸부림의 시간이 지나 도달한 결론은 분명했다. “공교육과 입시 중심 교육에 갇힌 미션스쿨을 넘어, 기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학교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 청소년을 향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실천하다

이후 17년 동안 네 곳의 기독교대안학교 공동체와 함께 했다. 때로는 학교를 처음부터 설립했고, 때로는 세워진 초등 과정 위에 중·고등 교육 전반을 구축했으며, 또 때로는 입시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교육 지평을 열어 가는 학교에 파견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 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교육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소명 교육 및 소명 코칭 교육과정
2. '창조론-진화론'에 대한 균형 있는 가르침을 위한 과학교육 방안 연구
3.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소논문 출판 및 동역회 춘계 학술대회 참여
4. 라브리 공동체 탐방을 통한 세계관 교육
5.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독서대회 주관
6. 융합독서를 통한 세계관 수업
7.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러닝 저니 및 통합 수업 · 프로젝트 개발
8. 하브루타, 테필린, 성경 연구를 접목한 아침 묵상법 개발 등

이렇게 기독교대학교들의 다양한 실천 연구는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총론적 가르침을 넘어, 보다 풍성한 기독교 교육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을 정제하여 한국 교회로 흘러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엘리아에게서 엘리아에게로, 다음 세대에 위임하라**

한국교회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엘리아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이 귀한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통로가 기독교대학교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기독교대학교의 설립과 건강한 운영은 더욱 절실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기독교대학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목회자 중심의 운영, 설립 교회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유학을 위한 도구로 전략한 국제학교, 리더십의 재산 편취 문제, 학교를 권력과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 학교를 흔드는 입시

욕망에 사로잡힌 학부모그룹, 신입 리더십의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로 인한 교사 이탈 등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 이제 기독교대학교 안에 깊은 성찰과 회개, 그리고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최근 3년간 6~7개의 기독교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대학연'(기독교대학교 학생 연합회)을 조직하고, 매년 여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간 연합과 교류를 시도하며, 기독교 학교의 '대안성'을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필자는 '기대학연'의 간사로서 그들을 섬기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이들이야말로 엘리아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을 엘리아들이구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동역회의 유산이 '기대학연'으로 흘러가길 기대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분명 다음 세대로 들불처럼 번져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기독교 세계관 독서대회와 춘·추계 학술대회 참여 그리고 '기대학연'과 연계한 기독교 세계관 캠프를 제안하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승기**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통일교육을 전공하였다. 여러 기독교대학교들을 설립하고 멘토링하라는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 길을 걸으며, 현재 별무리학교 교사로 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대학연' 간사로 섬기고 있음. KBS, MBC, SBS를 통해 창의적인 수업을 소개했으며, 기독교 교육, 미래 교육, 소명 교육, 과학 교육, 통일교육 등을 연구하며 강의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 전인격적인 돌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조지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약 20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학 분야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접근해 본 경험이 없다. 그렇기에, 지난 17년 동안 두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해 온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소박한 견해를 나누고자 한다. 대학 시절 신앙을 갖게 된 나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한 생명이 신앙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여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삶의 여정에서 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이라는 것이 특정 커리큘럼이나 ‘교수-학습’의 방법을 넘어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믿음의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도우며 지원해주는 ‘전인격적인 돌봄’의 차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첫째 자녀가 중학생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경험한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기독교 동아

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아들은 가끔씩 선배들과 함께 청소년 찬양 집회에 참석하며 깊은 은혜를 받곤 했다. 비록 매주 모임에 성실하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선배들이 졸업을 앞두고 되면서 아들은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를 제안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그동안 모임의 주축이 되었던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아들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모임 전날이 되면 아들은 아무도 오지 않을 자리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

때마침 나는 개척교회 성장 사례를 연구하는 〈Hope for the Church〉 프로젝트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10개 교회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아들을 위해,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성도’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그 무렵, 친한 친구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 기도 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고, 또 한

명의 친구도 합류했다. 세 친구는 교실을 다니며 기독교 동아리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평소 청소년의 기독교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었던 온누리 교회에서도, 이 모임을 돕기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셨다. 목사님은 사역팀과 함께 풍성한 찬양과 말씀, 기도로 아침 모임을 섬겨주셨다. 교회 사역팀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동아리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과 후배들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동아리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임을 위해 함께 부를 찬양을 고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간식을 준비하고 의자를 셋팅하며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오지 못한 친구들과 후배들을 찾아가 간식을 전해주며 안부를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덧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아침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동아리에 활력이 생겼을 때, 나는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교회의 절기를 기념하여, 학교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들은 동아리 선배들이 진행했던 행사를 떠올리며,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감사 제목 이벤트'를 함께 준비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독교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친구들까지 포함하여, 15명이 함께 모여 수백 개의 간식을 포장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을 포함한 전교생은 등굣길에 즐겁게 감사 제목을 적고 붙이며 간식을 함께 나누었다. 감사 이벤트를 계기로, 신앙이 없는 친구들까지 꾸준히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후, 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어갈 두 명의 후배를 세운 뒤, 앞선 선배들처럼 모임을 섬길 재정을 후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줄업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신앙 안에서 자발적으로만 들어가는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즐겁게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교회와 가정, 학교라는 삶의 전 영역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격려, 기도와 물질, 동역의 지원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는 내가 만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여정, 즉 이 땅에 한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적인 돌봄의 손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교회와 가정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진 포용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즐겁게 초청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한 영혼과 한 공동체를 세우는 '전인격적인 돌봄'의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이 믿음의 두 발로 서고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돌봄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힘 있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조지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생애사 기반의 질적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심 분야는 타자 윤리 및 정치철학이다. 현재 서울대와 숙명여대의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상선 (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



나는 작가이자 평론가로서 교육 실천 현장에 있다. 최근 어린이 문학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연과 사물, 나아가 기호에 이르기까지 비인간 존재를 인간의 보조적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주체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인간만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점을 넘어, 다양한 존재들이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형성해 간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서정적 문법을 넘어 실험적인 표현과 형식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며, 이를 작가의 실험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 동시와 동화, 그림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작품들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주체의 다양성과 작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서사는 쉽게 발견된다. 또 이러한 작품들은 실험성과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어린이 문학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새로운 캐릭터 설정이나 기호학적 구조, 서사적 언어의 독창성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칼데콧상을 수상한 존 클라센의 그림책, <이 모자는 내 모자가 아니야>는 친절과 용서, 배려의 가치보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열린 결말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은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돌려주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히치콕 유형의 긴장 구조를 의도했으며, 작은 물고기는 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실험성과 수상 경력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모순이 쉽게 용인되는 환경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서사가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문학의 자율성과 상상력의 품격을 지키려는 책임 있는 응답을 고민해야 한다. 아동 문학의 아동성과 품격, 그리고 문학의 미학을 함께 성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 읽기의

눈과 창을 열어 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엇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세워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아동·청소년기는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세계관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고, 선택과 관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이는 아동기의 교육이 일시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평생을 관통하는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동·청소년 교육은 어떠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내며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은 말씀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5-7). 이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실천적 모델은 가까운 곳에 있다. 부모의 언어와 태도, 교사의 시선과 관계 방식이 곧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실제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는 논리적 설명보다 이야기와 경험을 통한 교육이 더욱 깊이 작용한다. 이야기는 아

이들의 정서와 상상력을 통과하여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많은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방식입니다. 좋은 그림책과 동시와 동화는 선과 악, 관계와 책임, 상처와 회복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공명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교훈 전달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로마서 12:2)라고 말한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다음 세대 안에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일상 속에서 드러날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와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심어갈 때, 그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되어, 세계를 품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지상선**

한국독서코칭연구소(이코그램그림책연구소) 소장이다.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우석대학교 학생센터 객원상담 교수. 연구법인 HA질적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독서치료학회 수련감독. 시·동시·평론 등단 작가. 아동·청소년교육 및 심리전문가. 그림책 서평 및 문학평론가. 동화연구가. 동요작가. 수원문화대학 아동문학창작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

교육은 아동·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교육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등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삶>(5+6월호)은 ‘가정과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자이자 교육개혁 실천가이신 송인수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그 혜안을 얻고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어 : 석종준(서울대 기독교학생복클럽 지도목사)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오후 6:30  
장소 : 교육의봄(용산구 한강대로 46길 10, 나동 301호)  
사진 : 김은진(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석종준** 선생님은 공립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좋은교사운동’ 대표(2000~20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2008~2020), ‘교육의봄’ 대표(2020~2026) 등을 역임하며 우리 사회를 더 바른 교육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한결같이 힘써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송인수** 예수 믿는 교사는 약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요. 아이들이 입시와 사교육에 눌러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무한 학교가 서울 변두리 낙후 지역에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영어 지식 배경이 거의 없어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공부 못해도 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라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연구해서 중학교 문법 지식 없이도 제 수업을 10번 정도만 들으면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3학년 학생들이 1학년들

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학교에 포기 말아야 할 과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체육, 하나는 송인수 선생님의 영어야.” 기분 좋았지요. 그러나 당시 저의 관심은 가르치는 학생들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의 고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기독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우리가 해왔던 여러 실천 활동에 교사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신년 초 담임 반 아이들 집을 방문하기, 가장 어려운 학생 1명을 선택해 1년 동안 보호자 되어주기, 촌지 받지 않기, 학생들한테 내 수업 평가받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했지요. 그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보람을 느꼈고 성과가 좋아서 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참여 회원들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자, 학교에서 있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 싶어 저는 2003년 3월 퇴직해서 5년 간 ‘좋은교사운동’ 상근 대표로 일했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좋은 교사’ 출판 사업에 집중하려던 제게 “나이가 45세이니, 더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라”라고 주문했어요. 바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인데요. 은사 손봉호 교수님(서울대 명예교수)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불가능한 문제이니 나서지 말라”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증거가 있어서 결국 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동대표로 12년 동안 일하면서, 한때 사교육비 2조 줄이기, 외고 입시에서 영어 듣기 시험 폐지, 선행 교육 규제법 제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기업들이 출신학교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관행 때문이었어요.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니, 명문 대학, 특목고 입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가 학원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 것이지요. 결국 학벌 중심의 채용 관행을 바꿔야 교육도 달라진다고 여겨서, 6년 전 ‘교육의봄’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석종준** 교육개혁 실천가로 앞장서 활동해 오면서 선생님께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열매들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요.

**송인수** 선행 교육 규제법, 외고 입시 제도 바꾼 것, ‘합격’ 현수막 내걸지 않기 등 한 30여 가지가 되더군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육 전문가들에게 우리 단체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히 괴로운 것은 입시 경쟁 고통이 더 심해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하기가 자신 없었습니다. 서울 모 지역에 아파트를 사러 가면, 부동산 중개인이 “저 집, 저 집, 저 집이 비어 있어요.”라고 소개합니다. 그 집들은 다 사연이 있기에 비었다는 것이

지요. “무슨 사연이에요?” 물으면 “입시 경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아이들 사연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석종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교육의 특징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그러한 환경은 아이들의 인격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인수** 가장 큰 특징과 문제는 학벌이 우상이 된 그릇된 세계관입니다. 학벌이 좋아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공포 가운데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을 부추깁니다. 그로 인한 병리적 현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전인 교육, 공동체성, 배우는 기쁨,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20년 동안 자라면 욕망만 가득한 ‘짐승’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곳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품행도 방정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 해 전,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 단톡방이 폭로된 적이 있어요. 난잡한 성추행적인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명문대생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키운 것입니다. ‘학벌 따는 것’을 최상위 목표로 삼고 다른 모든 고귀한 가치를 상대화시킨 결과입니다.

**석종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신 선생님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은 일반 교육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송인수**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 봅니다. 그중 출발은 ‘자기다움’이라는 고유성의 발견입니다. 그것 없이는 세상에 기여하는 삶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를 존중해야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요. 공

교육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유성보다는 사회와 입시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질서와 목표를 내면화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공교육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석종준**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기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교육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인수** 말씀드린 대로 자기다움의 고유성을 지키며 타인을 섬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교처럼, 교회도 자기다움의 고유성 교육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회의 획일적 가르침으로 착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존재로만 키우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나를 맞추는 존재로 키워낼 가능성이 큼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마 16: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고유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존귀한 특성으로 가족, 이웃, 고통받는 타자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5월에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학원을 잠시 다닌 것이 거의 전부인데, 자기 속에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에 당황했지요. 우리 집안에 미술로 직업을 삼은 사람도 없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예체능하겠다고 하면 어릴 때 짝을 잘라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에 고생은 했지만 결국 미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오히려 자기 색깔이 분명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성취를 더 잘 해내는 것을 보며, 그렇게 기르는 것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석종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밖의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현장은 어디이고, 그곳은 왜 중요할까요?

**송인수** 교회 밖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거의 실패입니다. 학생 예배 40분 정도 드리고 공과 시간 20-30분 정도를 갖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별 영향력이 없는 교회 생활이지만 부모들이 요구하니까 끌려다니다가, 열에 아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다 큰 자식의 선택을 부모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 공간은 ‘가정’입니다. 거기서 부모가 자기다움을 존중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하며 속의 것을 끄집어내고, 아이들이 다소 엉뚱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유를 물어보며, 마음속 동기를 읽어 주고 그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며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르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점수와 등수를 강요하며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식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끈이 이어지면, 신앙 교육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전문적 성경 지식이 있어야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삶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석종준** 우리 기성세대가 아동·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각자 몫을 다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송인수** 계속 부모의 역할에 초점 맞추고 싶어요. 저는 첫째 아이가 중1 때 체점을 하나도 하지 않은 시험 문제지를 가져온 것을 보고, 그 후 6년간 점수와 등수를

물어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수와 등수로 대화하는 사이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만남이겠습니까?

어제 둘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만약 그 자식이 뭔가 삐딱선 타고, 동생과 관계도 좋지 않고, 학교서도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산다면 화가 나서 혼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너는 그러지는 않을 거야.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가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내가 언제 한번, 네 목줄을 잡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거나 억압한 적이 있니? 없었잖아. 네가 고등학교 때 나와 다투다가 이틀 동안 가출한 적이 있었지. 그때도 우리가 대화하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관계가 회복됐잖아. 너도 네 자식과 갈등이 생겨 화가 날 때, 분명히 엄마와 아빠가 했던 방식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따를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인정하는 것이예요.

제가 또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모범생이고, 학교 선생도 했고, 그래서 모범생의 틀에 맞춰서 너를 키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부모의 태도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대신 네 입에서 ‘엄마 아빠가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하잖아. 그게 그 이유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한 가지 목표가 진심이라면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요. 그렇게 자식을 향한 기대와 염려를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방심하며 제멋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부모의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내려봐도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아요. 아이의 인생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는 아이 자신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청

소년을 부모가 이끌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만, 아이들도 생각합니다. “난 뭐 먹고살지. 지금은 이렇게 막 살지만,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때 아이는 문득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작하고 부모는 따라가면 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존중할 때, 우리는 자식을 잃지 않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에게 주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인수**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자본주의’, 즉 돈입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선생이예요. 문제는 자본주의의 가르침 방식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대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되겠니?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거야,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욕망을 부추기고 실현할 방법을 보여주며 꼬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를 강요합니다. 세련되게 진리의 세계로 유혹하지 못합니다. 욕망을 거스르는 삶을 강조하니 불편해 합니다.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설득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10대 연습생들에게 ‘욕하지 말라, 성실하라, 진실되라!’ 그런 회사 방침을 전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연습생들이 잘 집중하며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면 꼬시는 방법은 찾기 마련입니다. 마치 연애했 때처럼이요. 다만, 아이들의 인생 성패가 대입 19세에 달려 있다는 그 강박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유 있게 아이들의 영혼을 만날 수 많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FAITH & LIFE

## AI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톺아보기

박동열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 / 동역회 이사)

얼마 전,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학회장을 맡아달라는 전임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불현듯 학부 4학년 때 이화여대 근처 모 교수님 댁을 오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아더 홈즈(Arthur Holmes)의 <기독교 세계관> 등을 읽었던 독회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차분한 인격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양성만 교수님, 김현수 목사님, 오창희 목사님 등을 만났습니다. 선배님들은 교회와 세상이란 이원론적 도식에 함몰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다 보니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의 내면으로만 축소되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 잠식당하게 되어,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겪었던 것처럼, 저도 제자훈련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에 대한 메시지에 뜨겁게 반응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독재와 구조적인 악에 대해 저항하는 학생운동권과 진보적 기독교의 비판적 메시지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인 경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궁극적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학생운동권, 이 둘 사이에 끼여서 저는 늘 모종의 압박감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학문연구회

를 만나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을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유학 기간에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메타 담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이, 네덜란드와 미국 기독교계 중심으로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기술되었다는 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 담론이 성경 말씀에 천착하기보다는 철학적 사변으로 설명되고, 치열한 삶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형이상학적 논의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관 논의는 늘 총론만 이야기되고, 현실적인 각론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개신교도인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저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뤼의 저서들은 사회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으로 구분되지만, 두 측면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학적 측면과 관련하여<sup>1)</sup>, 엘뤼는 무엇보다 현대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체계가 되어 버렸고, 기술 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기술 담론'은 거짓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정치' 및 '선전'과 관련하여, 엘뤼는 정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길 권고하였고, 현대 기술 사회에서 선전이 끼치는 영향력 및 선전을 통해 야기

되는 폐해를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엘뤼는 온갖 역사적 혁명을 분석한 후,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혁명이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과 이미지에 짓밟힌 인간의 '말', 현대 세상의 '새로운 신화들', 교묘히 모습을 바꾼 부르주아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엘뤼는 다양한 신구약 성서들을 분석하였고, 기도, 자유, 소망, 돈, 폭력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뤼는 여타 사회학자들이 하듯이 단지 세상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 세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실재'를 폭로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sup>2)</sup> 실로, 엘뤼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엘뤼에게서 주목하는 바는, 엘뤼의 연구와 생애가 삶에서의 철저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제자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뤼는 오랜 기간 바르트 신학 계열의 잡지 <신앙과 삶 Foi et Vie>의 편집위원장을 맡았고, 목회자가 없는 교구에서 직접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레지스탕스에 참여하여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여, '야드 바셈'(Yad Vashem) 재단으로부터 '열방의 의인'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엘뤼는 보르도(Bordeaux)의 부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오랜 기간 보르도 지역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더욱이, 엘뤼는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Aquitaine)

해안을 콘크리트로 뒤덮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을 이끌어, 프랑스 환경보호 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엘뤼의 삶은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히 몸으로 구현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뤼는 혼자서 신앙적 실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는 늘 그와 함께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이른바 '경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장밋빛 환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 흐름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조바심과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훑아보기'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너무 편리한 인간 상황에 몰두하여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재해석하여 십자가의 삶과 정신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지성주의'<sup>3)</sup>와 싸우는 일을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박동열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교육중흥연구원 원장이다. 프랑스 파리-소르본 대학(파리4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원(M.Div)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회장,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1) 이상민 (2020).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도서출판 고북이.  
 2) 박동열 (2010).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대장간.  
 3) 김기현 (2024).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의하기", 세계관 발표논문, p. 187.

#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이끄실 하나님의 사랑

최현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선생님, 왜 창세기 말씀에 공룡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요?” 우리 반 아이가 주일 설교말씀 때 나에게 물어본 질문이다. 많은 생각이 났다. 그중 하나를 아이에게 대답해 줬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야. 우리 수학책에서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수학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하고 전도사님 말씀 들어요”라고 질문을 일축했을 것 같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가족과 친척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환경 속에서 말씀, 찬송, 봉사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교회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선교도 다녀오고 매주 봉사도 열심히 하는 신앙심 좋은 학생이었을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나 사랑했다. 꽤 오랜 시간을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이 정확히 내 모습이었다. 다행히 군 생활 중에 전환점을 만났다. 군대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선임과 후임을 직접 보았다. 그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합리화하고 살았을까”를 돌아보게 되었다. 전역 후 어느 교회 금

요 철야 예배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회심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누구든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해도 때때로 넘어지기 쉬운 환경에 놓인다. 종종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행위로부터 의로워진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각자 더욱 깨어있는 공동체의 지체로 거듭나야 한다.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로마서를 한 주에 한 장씩 필사하고,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 더 알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제안해 본 일이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는지 서로 나눌 때면 다들 그러지는 못하였다며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그저 나눠줘서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다시 회개하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묵상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다.

최근 내가 소속한 연구실의 회식 자리에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동기와 선후배에게 물어보았다. 꽤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바빠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였다. 일부는 지나친 포교 활동 때문이라고, 누구는 신의 존재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이유를 말해주었다. 공감 많이 되었고 안타까웠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성경을 본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 감정이 앞설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럴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낸다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붙들고자 한다.

대학원에서 와서 정말 많은 논문을 보며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을 느낀다. 각 사람의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깊어진다. 자연은 또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얼마나 창의적인지 감탄이 나온다. 스스로가 참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한다.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나는 가끔 엉뚱하게도 밸런스 게임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저널에 투고하기 vs 한 영혼 전도하기' 같은 상상의 밸런스 게임이 종종 나를 사로잡고 있다. 실험 데이터를 잘 얻고 빠르게 정리해 퇴근해서 내 연구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친히 빚으셨다고 믿기에,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통로가 되고 싶다.

저번 달에 3년전 우리반이었던 아이가 찾아와 나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좋았어요."라고 말해주었다. 말을 정말 안 듣던 아이였다. 일주일에 딱 2시간 만나는 아이를 나는 그 시간만큼은 인내로 사랑으로 잘 지도해보겠다고 결심했었다. 그 품었던 사랑이 전해진 것이었을까. "친구 같은 선생님이 좋았어요."라는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회심, 앞으로의 다짐 등은 모두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작으나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현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이며 초등3부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 셀리더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클럽(대학원) 멤버이다.

# 덕분에,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혜란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부 박사과정)



나는 매 주일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서도 너무 어른 같지는 않은 아이들과 교제하고 싶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중등부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자 사춘기라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차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나는 이 사춘기 아이들조차 신기하고 귀엽게 느껴진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의 영혼들이 맞았다. 어느 아이는 중등부에 들어와 맞는 첫 번째 겨울 캠프에서 캐릭터가 그려진 내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니, 어느덧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캠프 즈음에는 가오를 잡고 귀찮아하는 듯 말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기에 키가 훌쩍 자랐고, 중등부에 막 올라왔을 때 마냥 귀여웠던 모습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중학생이 되면 성적이 등수로 매겨지는 경험을 처음 한다. 이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마치고 최소 주 2~3회는 저녁 9~10시까지 학원에 머문다. 주말에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학원 일정으로 채워진 아이들이 적지 않다. 오전 주일에배를 마치고 곧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도 있다. 나는 10대 초중반 아이들이 주중에 학

교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체육 활동이나 음악, 미술 같은 여가 일정을 가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 직장인도 주 2~3회 야근이면 꽤 높은 업무 강도이기에, 이 관점에서 나는 왜 한국 청소년들이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지 이해가 된다. 다행히 아이들은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짬짬이 탄짓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도 찾는다. 내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낀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보는 예리한 눈이 있었고, 또 진심에 반응해 주었다. 교회 선생님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안부를 묻는지 아닌지를 금세 알아챘다. 분반 나눔 시간에도 성경에 적힌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믿어서 하는 말인지 구별해 내었다. 큐티와 말씀 낭독을 권하면, 권하는 사람의 경건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나의 경건 생활과 나눈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간혹 그 분반 시간이 교사의 단독 스피치로 채워져도 꼭 참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

었다. 예배 시간에 설혹 집중하지 않는 듯 보이고, 의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듯 보여도, 막상 대화를 나눠 보면 달랐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분반 나눔 시간에 꽤 많은 아이가 “이번 주는 내가 큐티와 기도를 해보겠다”라며 스스로 다짐하고 가는 모습도 보았다. 물론 나눈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이러한 갈급함이 느껴질 때, 이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가장 커진다.

셋째, 아이들은 믿음에 기반한 격려가 필요하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질 때면, “어떻게 돌보고 실천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섬기는 중등부 아이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이다. 말씀을 잘 아는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도 상당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다. “기특하다. 그래도 수고했다. 나는 네가 앞으로 더 잘 성장할 것을 믿고 기다린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 오직 나를 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 담긴 인내와 신뢰의 말씀을 주실 것 같다. 아이들이 예배에 많이 늦었을 때도 “늦게라도 왔구나! 일어나서 바로 오느라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때, 아이들은 웃어주고 마음을 열며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곤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신뢰이겠지만, “괜찮아~”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교사로서 나태한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아이들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음도 인정하

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상황에 따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아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직 청년으로서 나에게서는 낯선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 10대와 20대를 돌이켜 보면, 결국 나의 생각과 고집과 잘못을 깨닫게 하신 분은 사람의 훈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내 주변에 설정하신 상황들이었다. 맡겨주신 아이들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가장 잘 가르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 따라서 내가 할 바는 오직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를 간구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아이들과 관계는 이제까지 맺어온 그 어떤 관계보다 정말 특별하다. 이유는 무조건적 믿음과 신뢰, 헌신과 사랑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어느 때는 책임감으로, 어느 때는 거리 두기로, 어느 때는 진심과 사랑으로 대한다.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내 마음과 에너지를 통해서조차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 이 훈련을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물론 어떤 때는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면 쉬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뜻밖의 격려를 받게 하시며,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끝까지, 지혜롭게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

FAITH &amp; LIFE

 글쓴이 이혜란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부 박사과정에서 작물생육모델링을 통한 스마트팜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여의도침례교회 청년으로,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생복클럽(대학원) 멤버이다.

## 주일학교의 위기 앞에서, 다시 사랑을 생각하다

김영주 (성약교회 영아유치부 전도사)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를 자주 언급한다. 저출산 문제, 가정 신앙교육의 약화, 세속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본다.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거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과제임을 실감한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나의 첫 사역은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사역이 지닌 특별함과 매력은 참으로 크다.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모여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려지는 듯하다. 순장으로 세워진 리더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깊이 배우게 되었다.

내가 처음 담당했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는 소수의 순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신입생 사역을 통해 30명의 멤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리더가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훈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업을 감당하면서도 순장의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만큼 필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도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 물론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을 지도할 필자 자신의 영적 성숙과 본이 되는 삶의 태도였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아쉬움도 컸다. 그들의 내면의 미성숙함이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만 더 일찍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필자에게 그 답은 결국 교회 공동체였다. 이후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수의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학교 사역은 결과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다. 그러나 사역에 임할수록 이 사역이 얼

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된다. 아이들이 지닌 순수함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작은 손을 모아 “아멘”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된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영아유치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구조이다. 이 사역 가운데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던 한 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다. 당시 새신자팀 사역을 맡고 있던 필자는 그들과 함께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남편분은 “피도 안 섞인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그 부부는 새신자 교육을 마쳤고, 지금은 성도가 되어 모든 모임에 참여하며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워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반드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사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면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비록 방황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일 그 시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길 만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경

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바쁜 개인의 삶만으로도 벅찬데,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지닌 특별함과 유일함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삶의 지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버티고,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닌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변화를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영주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성약교회 영아유치부 전도사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간사로 캠퍼스와 국제 선교부에서 섬겼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 그 사이에서

김경훈 (원창물산 전략기획팀 팀장)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나를 붙들어 온 화두였다. ‘선데이 크리스천’(Sunday Christian)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교회 안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통용된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주일에만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 역시 그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에서는 또래 공동체를 섬기는 순장으로, 그리고 유치부 교사로 오랜 시간 봉사해왔기에 외형적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역시 신앙의 빛이 흐려졌던 시기가 있었으며, 지금도 그 빛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전략기획팀 팀장으로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나는,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판단을 요구받는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고환율과 글로벌 소비 위축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현실 속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을 위한 의사결정은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의 일터는 신앙과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공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순간을 빈번히 마주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묻게 된다.

나는 과연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을 넘어선다. 그것은 희생과 존중, 배려와 이해, 그리고 공감으로 드러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의 일터에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요구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고민 끝에 깨닫게 된 것은,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의 나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타인을 의식했고, 성과를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점점 비윤리적인 선택에도 무감각해져 갔다. 그러나 그 끝에 남은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공허함과 고립감, 그리고 점차 무너져 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의 본질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 뿐이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고, 소통을 즐기던 나는 점차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욕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욕의 이 짧은 고백은 나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자 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남는 고백이 '성공'이 아니라 '담대함과 충실함'이 되기를 바랐다. 이것은 열정을 내려놓는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결단이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나는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관계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사랑'을 점차 추상적인 개념으로 밀어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나는 조직 안에서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되, 그 과정에서 타인을 수단화하지 않으며 공정과 책임, 그리고 배려의 균형을 지켜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개인적 관계에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한 상황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적어도 내 욕심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스며들 때도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자리로 부르시며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신앙이 느슨했던 시기,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통해 다시 유치부라는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던 경험은 나를 지탱하는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감정과 판단이 앞서는 순간들이 반복된다. 또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반복된 선택의 과정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늘도 나는 그 경계 위를 걸어간다. **FAITH & LIFE**



#### ✍ 글쓴이 김경훈

원창물산 가먼트 생산 회사의 전략기획팀 팀장이다.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에서 IT경영학(Information Management for Business)을 전공하였으며, Boston Consulting Group의 Research Assistant와 아동 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무무즈를 거쳤다. 현재 서빙고 온누리교회 청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부르심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옷장 문을 열면 시작되는 세계관 교육

##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로 배우는 복음 이야기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 주는 일이며, 은혜와 죄, 선과 악, 구원과 심판, 희생과 사랑, 책임과 용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러한 세계관 교육에 있어 영화는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뛰어난 이야기다.

이 영화는 평범한 네 남매가 옷장 속 세계인 '나니아'에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나니아는 사악한 하얀 마녀의 지배 아래 얼어붙은 땅이 되었고, 사람들과 동물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예언이 전해져 내려온다. 네 명의 인간 아이들이 왕과 여왕이 되어 마녀의 지배를 끝낼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설정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성경 역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반복해서 말한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자 아

슬란이 있다. 아슬란은 나니아의 진정한 왕이며, 선과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에드먼드라는 아이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녀가 건네준 달콤한 터키식 과자의 유혹에 넘어가 형제들을 배신하고 만다. 이 장면은 죄의 본질을 매우 잘 보여 준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죄를 설명할 때 단순히 금지된 행동 목록을 나열하기보다, 왜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대속'이라는 복음의 중심 진리에 있다. 마녀는 오래된 법에 따라 배신자인 에드먼드의 생명을 요구한다. 이때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그는 스스로 돌 제단 위에 올라가고, 마녀와 그 군대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죽임을 당한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죄 없는 존재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개념

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지만, 아슬란의 이야기를 통해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돌 제단은 갈라지고 아슬란은 다시 살아난다. 마녀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을 때 죽음은 거꾸로 물러간다'라는 법이다. 이 장면은 부활의 의미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동과 청소년 세계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도록 돕는 것이다. 에드먼드는 처음에는 욕심과 질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다. 이 과정은 회개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에드먼드가 결국 용감한 왕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영화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네 남매는 서로 다투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 함께 싸우며 나니아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한다.

아이들에게 신앙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은 수많은 이야기와 영상 속에서 자라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들이 보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도록 돕고 있는가? <나니아 연대기>는 단순한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상징적

으로 담아낸 이야기다. 실제로 C.S.루이스는 2차 세계 대전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자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집에 피난 온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동화로 재탄생하였다. 네 명의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시골 어느 교수집으로 피난을 간다는 설정이 그것이다. 루이스의 부정적 감정과 상상력이 <나니아 연대기>의 모태가 되었다 하겠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되는 모험은 사실 우리 신앙 여정의 비유이기도 하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화(이야기)를 보고 함께 질문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 아슬란은 대신 죽어야 했을까?” “왜 에드먼드는 유혹에 넘어갔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아이들은 복음(예수 이야기)을 자신의 이야기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옷장 문은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와 질문 속에서도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FAITH & LIFE**



#### 글쓴이 추대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17세기 네덜란드 가정 교육의 시각적 발현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는 기독교 정신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했다. 당시 가정이 모든 권위의 원천으로 존중받은 것은 단순한 질서 확립을 넘어선다. 평균 가구원 수는 약 4.75명으로 다른 유럽 지역보다 적었으나 그만큼 유대감은 긴밀했으며, 가정은 세속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도덕적 방주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니콜라스 마스(Nicolaes Maes, 1634-1693)는 일상과 가정을 모티브로 한 장르화의 선구자로서 피테르 데 호흐(Pieter de Hooch)와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같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스는 주로 아이를 재우거나 바느질하는 여인, 자녀를 양육하고 채소를 다듬는 장면, 식전 기도를 드리는 노파, 성경을 읽다 잠든 노인 등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화면에 담았다. 그는 스승 렘브란트의 스튜디오에서 익힌 명암법과 기법을 활용하여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 깃든 숭고함을 포착해냈다. 이는 단순한 풍속의 기록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이어가려는 네덜란드 사회의 집단적 열망이 예술로 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적 풍토는 도르트 공의회(1618-1619)를 통해 제도적 공고함을 갖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기초가 마련되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성경을 읽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의 핵심을 암송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면화했는데, 가정교육을 통해 함양된 미덕은 곧 사회의 번영과 번창을 위한 기초 역량으로 간주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려되었다. 에스더 판 더 보이(Esther P. de Booy)는 자신의 연구에서 공의회가 확립한 '가정-학교-교회'를 잇는 '삼중적 끈'(De drievoudige snoer)의 신앙교육 구조를 주목한다. 당시 '학교 법령'(Schoolordes)은 교사에게 '교실 안의 목회자'라는 영적 지위를 부여하여 요리문답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이를 보충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경계 없는 공간 속에서 일관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받으며 신앙을 지적 동의가 아닌 신체적 습관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니콜라스 마스, 레이스 짜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 45.1x52.7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피테르 데 호흐, 청소하는 여인과 창가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베르너 컬렉션

이처럼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학습된 기독교 정신은 신앙의 영역을 추상적인 관념에 가두지 않고 내면화된 경건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으로 전이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즉 마음속에 새겨진 교리는 일상의 지극히 사소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특히 사이먼 샤마(Simon Schama)는 가정에서의 '청결'(Cleanliness)에 대한 집착을 칼뱅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네덜란드 시민에게 청소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내면화된 미덕이 외부로 표출되는 과정이자 '나태'라는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의식'(holy rite)이었다. 이러한 일상의 성소화는 얀 라위켄(Jan Luiken)의 상징집에 등장하는 '빨래통'(Washtub) 도상에서 드러난다. 라위켄은 빨래통 그림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주소서"(시편 51:1, 10)라는 구절을 넣어 일상의 평범한 습관을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숭고한 신앙적 훈련으로 격상시켰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가정은 혈연이 모인 곳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이자 핵심적인 공동체였다. 사이먼 샤마는 가정이 거친 물질과 원초적 욕망이 경건을 통해 '구속적 온전함'(redeeming wholesomeness)으로 변모하는 공동체로 분석했다. 피테르 데 호흐(Pieter de Hooch)의 작품은 가정을 '작은 교회'(Ecclesiola)로 바라본 사실을 드러낸다. 그의 그림에는 격식을 갖춘 예배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방 안으로 파스하게 스며드는 햇살과 아이를 돌보는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을 통해 신앙이 어떻게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데 호흐가 즐겨 사용한 '도르크레이크'(doorkijkje, 열린 문) 수법은 단순히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려는 시각적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문밖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집 안의 평화와 질서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담은 회화적 장치였다.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공간감은 사소한 일상의 현장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려 했던 네덜란드 가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아동 청소년 교육 역시 가정이라는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세상을 필터링하고 정화하는 '작은 교회'의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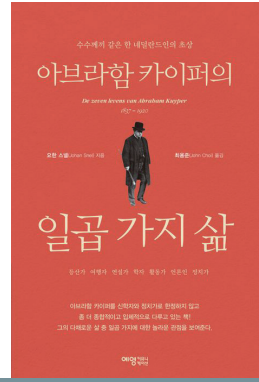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곱 가지 삶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곱 가지 삶〉 / 요한 스넬(Johan Snell) / 최용준 역 / 예영 / 2026 / 519쪽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일깨운, 신칼뱅주의 운동을 기초한 신학자였다. 동시에 네덜란드의 반혁명당을 설립하고 수상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세운 교육가였다. 20세기에 발간된 카이퍼에 관한 전기만도 열두 권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516면). 이 위에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스넬(Johan Snell)을 통해 2020년 또 하나의 카이퍼 전기가 추가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연대기적 전기가 아니라 ‘일곱 가지 삶(역할)’이라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카이퍼의 다층면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첫째, 등산가. 카이퍼는 열정적인 등산가였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 모음집, 〈자아상〉(1912)에서 “25년 동안 스위스, 티롤, 피레네,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등반에 몰두했다.”라고 밝혔다. 또 영국 저널, 〈더 가디언〉은 1920년 카이퍼가 사망하자 “그는 당대 최고의 등산가 중 한 명이었다”라고 회고했다.(79면). 카이퍼는 알프스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사색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

다. 카이퍼는 정치가, 신학자, 언론인일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으며, 영적 재충전을 위해 몸도 잘 사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123-124면).

둘째, 여행가. 카이퍼는 유럽, 미국 등 세계를 광범위하게 여행한 사람이었다(129면). 그는 특별히 거의 매년 영국에 갔고, 그때마다 가지고 온 자료와 정치적, 문학적 즐거움으로 삶이 풍부해 졌다는 회상을 80세 유럽 회상했다.(132-134면). 특히 그는 대서양을 횡단한 1898년 가을의 미국여행에서는 2주 동안 6차례에 걸친 기념비적인 스톤 강좌(Stone Lecture)를 프린스턴에서 수행하기도 했다(183-184면). 그는 여행을 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카이퍼가 초국가적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연설가. 카이퍼는 대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연설능력의 소유자였다. 2002년, 역사학자 헝크 트 펠트는 카이퍼의 열정적 연설이 “네덜란드 정치에 새로운 스타일이었고, 이는 당시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던 유형이었다.”(197면)라고 했고, 요한 스넬은 “그는 거의 언제나 연단에서 군중들의 따뜻한 찬사를 받았다. 70

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났다.”라고 썼다(244면). 카이퍼의 이 달란트는 수단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글’로서 뿐 아니라 ‘말’로서도 대단했다는 것이다.

넷째, 학자. 카이퍼는 1855년 레이든대학에 입학한 이래, 철학, 고전문학, 신학을 배우며 학자로 성장했고, 자신이 설립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VU)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철학, 문학, 신학을 가르쳤다. 특별히 자신의 최고 역작으로 평가받은 <신학백과사전>(1894)과 기념비적인 프린스턴신학교 강연을 엮은 <칼뱅주의 강연>(1898)을 남겼으며, 세 권짜리 <일반은총>(1902-1905) 등을 통해, 신칼뱅주의 세계관에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288-289면). 신학에서 여러 영역을 계속 확장되었던 그의 저작들은 이른바 ‘공공신학’의 선구적 결실이다.

다섯째, 활동가. 카이퍼는 왕성한 활동으로 1874년 이후 천 개 이상의 만평이 되기도 했는데, 이 책의 요한 스넬이 “역사적 인물중 카이퍼 만큼 많은 이미지가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평할 정도였다.(305면). 카이퍼는 노동문제, 사회정의, 교육의 자유 문제 등에 활동가로서 적극 개입하였다. 특별히 그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영향력이 약한 평범한 대중, 즉 ‘서민들’(kleine luyden)을 위한 정치에 최선의 힘을 다한 활동가였다. 했다(336-337).

여섯째, 언론인. 카이퍼는 반혁명적 성격의 신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드 스탠다르트>(De Standard, 1872)의 창립자, 편집자, 소유주였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수만 편의 글을 집필했고 그것을 통해 여론 형성에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강력한 활동은 1901년 총리직에 취임하면서, <드 스탠다르트>의 편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지속되었다.(390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 인물루언서이자 대

중 사상가’였다.

일곱째, 정치가. 카이퍼는 최초 네덜란드의 근대적 정당인 ‘반혁명당’을 조직했고, 네덜란드 총리(1901-1905)를 역임했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로서 다섯가지 없적을 이루었다. 1) 철도 파업을 종식시킴. 2) 영국 정부와 협상하여 보어전쟁을 종식시킴. 3) 주류법, 4) 자유대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교육의 자유 실현. 5) 델프트공과대학을 대학 수준으로 격상시킴.(399면). 그는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입각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세상 변혁을 위한 정치에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그리스도인이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신학자와 정치가로서의 아브라함 카이퍼만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풍성한 삶을 산,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한 네덜란드 그리스도인의 초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전하는 몇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이퍼는 다층면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다. 둘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셋째, 카이퍼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진보적 민주주의자였다. 넷째, 뜻을 함께한 동지들과 적들에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어진 인물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 보완하고 종합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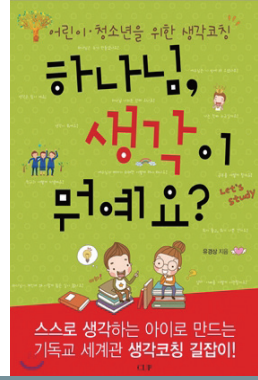


**글쓴이 석준선**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2012-현재)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종교철학, Ph.D), 서울대학교회 목사(2012-2016), 침신대 겸임교수(2000-2025)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학생클럽 지도목사, 그리스도인 소장학자모임 간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 '?'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김아영 (수지 기쁨의교회 전도사)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 유경상 / CUP / 2013. 260쪽

## '?'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요즘 세대는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한다. 교육 현장에 있는 '기독교 교사'로서 '?'를 잃어버린 세대를 자주 만난다. 그러나 인생은 '?' 투성이다.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유경상 교수는 "하나님, 뭐예요?"라는 친근한 질문으로 다가와 질문하는 법,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것이 창조주가 심어준 유일한 인간의 특징이다. 그러나 '?'와 멀어져가는 세대에게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라는 제목은 '?'를 다시 우리에게 던진다. 무겁게 느껴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재미있는 질문을 통해 실천적으로 풀어낸다. '?'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의 '답' 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나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온통 '?'으로 가득하다.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세계관'이라는 묵직한 단어는 표지에만 잠깐 등장한다. 그리고 계속 질문한다.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은 힘이 세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 생각은 '나'에게로 다가온다. '나'에 대한 '하나

님'의 생각과 만난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생각을 재정렬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무거운 신학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학생들과 읽고 이야기하고 체험하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와 친해진다. 그리고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다. 'TAP & New TAP'(Think, Action, Product) 기법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책에서 '생각'을 씨앗에 비유하여 '마음 밭 갈기, 생각 씨앗 심기, 생각 나무 가꾸기, 생각 열매 거두기, 미션 활동'을 통해 생각을 삶으로까지 연결하도록 안내해 준다. '?'와 떨어진 세대에게 다시 '?'를 던지고,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써, 존재로서의 기쁨과 창조자의 목적대로 사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된다.

##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지 않은가?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한다. '안경'을 잘못 쓰면 모든 것이 왜곡된다.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니, 늘 눈먼 자가 더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전혀 없

는, 열매가 없는 삶이니 버겁기만 하다. 소경 된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니 어찌 그 삶이 평탄하겠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생각의 렌즈를 닦고 조이는 과정이다. 질문을 통해 생각이 조율되는 과정을 겪는다. 질문하지 않으면, ‘깜깜이’ 상태로 지내는 것이다.

저자의 다른 책, <크리스천 씽킹>에서 ‘사향소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 있다. 복음을 들었으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뽕뽕 뭉쳐 있어서 아무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영락없이 사향소 무리 중 하나였다.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교회 생활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고,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저 죄악 많은 이 세상은 내가 갈 곳은 아니지.”가 아니라 “내가 빛을 들고 나아가서 밝혀 주어야 하는 세상”으로 시선이 바뀐 것이다.

### ‘?’에 ‘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된 ‘?여행’을 통해, ‘왜곡된 세계관, 오염된 세계관’들을 발견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의 힘을 알게 되었다. ‘?’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에게, ‘?’를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운 사유를 하게 되었다.

저자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시작으로 ‘미디어,

성품, 꿈, 공부, 청지기’의 주제로 ‘하나님, 뭐예요?’를 계속 질문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고 ‘월드뷰페밀리 아카데미’(CTC기독교 세계관교육센터)를 통해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대함을 통해 자녀들에게 도서, 문화, 영화 등의 콘텐츠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있다.

교회학교에서 이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를 싫어하는 세대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를 좋아한다. 이미 굳어버린 어른들보다 질문을 좋아한다.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답’하시기를 즐겨워하신다.

‘?’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를 회복시켜 주는 책이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싶지만, 난관에 부딪힌 부모, 질문 없는 다음 세대와 어떻게 대화할지 고민인 교사, 교회 안에 갇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책의 안내대로 ‘질문’을 시작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 FAITH & LIFE



✍ 글쓴이 김아영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용인 ‘수지기쁨의교회’에서 유년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두 자녀를 기독교 홈스쿨을 통해 양육하고 있으며, 홈스쿨 지원단체 ‘조슈아국제아카데미’에서 간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젊은 세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 원남교회 금요성령집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다.



매주 금요일 밤이 되면 원남교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모인다.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의 자리이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금요일 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와도 같다.

특히 원남교회 금요성령집회의 특징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갈망이다. 누가 권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리이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삶의 변화와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개인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진다.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소망을 본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금요일 밤, 하나님을 찾는 젊은 세대의 기도가 모이는 곳. 원남교회 금요성령 집회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정경철

원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충신대학교 신학과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원남교회 금요성령집회 참가자 소감문

## 의무를 넘어 사랑의 초대로

나는 원남교회 청년부 팀장으로서 전도와 심방, 새벽기도와 예배 사역으로 쉼 없는 일주일을 살아 간다. 이 사역들이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져 평일 예배를 지키는 문제로 리더들과 싸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급함과 책임감으로 나아간 금요성령집회에서 하나님은 내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첫째,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찬양 인도와 팀장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자격 없는 내가 공동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며, 내가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사역은 내가 증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사역이 반복되면서 내 시선이 영혼이 아닌 출석과 결과에 머물고, 마음에는 사랑보다 정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탈진의 끝에서 드린 금요성령집회는 나에게 안식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은 “너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회복되었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사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밀려왔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불안을 내려 놓고 지금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금요성령집회는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다. 이 자리가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회복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혜인



원남교회 오투청년부에서 팀장으로, 마하나임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나노바이오시스템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부자(父子)의 성경적 세계관(1)

최용준 (한동대학교 시 융합학부 교수)



이 글은 독일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부자<sup>1)</sup>의 생애와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회적 사역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부친 보델슈빙은 독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나, 청년 시절 농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토지 없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빈곤과 열악한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바젤, 예를랑겐, 베를린 등에서 신학을 수학한 그는 파리에서 독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수행하면서 도시 빈민과 노동자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사명이 단순한 영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돌봄과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신학 형성에는 개인적 고난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러 자녀를 질병으로 잃는 비극적 경험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이끌었고, 이는 십자가 중심의 신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나 징벌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나아가 고난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그의 성경적 세계관은 몇 가지 핵심 원리로 정리된다.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신념에 근거하여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인, 빈민, 정신질환자 등 당시 사회에서 배제되던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보호로 이어졌다. 둘째, 그는 이웃 사랑을 복음의 본질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삶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동이나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 그리고 사

1) 아버지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Christian Carl von Bodelschwingh, 나중에는 Friedrich von Bodelschwingh der Ältere, 1831-1910)은 목사이자 신학자였다. 그는 '내지 선교회'(InnerMission)에서 일했고 간질환자들을 돕기 위해 빌레펠드(Bielefeld)에 '폰 보델슈빙 베헤넨 재단'(v. Bodelschwinghsche Stiftungen Bethel)을 설립했다. 그를 이어받은 아들 프리츠 폰 보델슈빙(Friedrich (Fritz) von Bodelschwingh der Jüngere, 1877-1946)도 신학자였으며 부친의 사역을 이어받아 '베헤넨 재단'을 발전시켰다.

회적 책임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그는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넷째, 그는 고난을 십자가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신앙적으로 재조명하였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수동적 인내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장되었다. 다섯째, 그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해하여, 신앙과 삶이 통합된 공동체적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공동체는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여섯째, 그는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신앙이 사회 구조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복지 제도와 사회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는 간질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맡아 이를 ‘벤엘재단’으로 발전시키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노숙자와 실업자를 위한 보호시설,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건축 은행 설립과 같은 경제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여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는 종교 의류 수집과 우표 모금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는 이후 사회복지 기관 운영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떠돌이 노동자 보호 법안 제정에도 참여하여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법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였다.

아들 프리츠는 이러한 신학적 유산을 계승하여 20세기 독일 사회의 격변 속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교회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신앙과 사회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초기에는 우생학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나치의 장애인 말살 정책인 T4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항의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한편, 행정적 절차를 활용하여 이송을 지연시키고 환자들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보호하려 했다. 동시에 그는 교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며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대응은 공개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제도 내 저항’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전쟁 이후 그는 독일 개신교회의 재건과 통합에도 기여하며 신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결국, 보델 슈빙 부자의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 존엄, 이웃 사랑, 노동, 고난의 신학, 공동체, 공공성,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적 토대가 이후 ‘벤엘 재단’이라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졌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 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주제 : AI시대 창조론 톺아보기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12:30~18:00 (대학원생 발표 - 10:00~11:30)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 정암홀 (천안시 동구 충절로 535-31)

주제 강연 : 양승훈(에스와티니 기독교의과대학 총장), 정대경(연세대 연합신대원 교수), 김아람(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

패널 : 이윤석(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차수진(한양대 교수, 생명과학), 강윤희(백석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일반 주제 분과 발표 논문 신청 안내

신청 및 요약본 마감 : 2026년 5월 8일(금) / 논문 제출 마감 : 2026년 5월 13일(수)

## 2026년 임원가족수련회 안내

주제 : '임원 간의 단합 및 사역방안 논의'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 7월 3일(금) / 장소 : 별무리학교 & 국립자연휴양림

## 2026년 기독교 세계관 학교 개최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18:40 ~ 20:30

장소 : 별무리학교 대예배실 / 교실

내용 : 기조 발제 & 선택 강의 (경제, 보건의료, 세계관, 문화컨텐츠읽기 등 4~6개 세션)

##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1권 2호 (6월 30일 발간)

31권 1호는 6편 이월 논문과 11편의 투고 논문 중, 총 7편이 게재되었다. 31권 2호(6월 30일 발간)의 논문 접수 마감은 4월 30일(목)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김태환(명지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명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명예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퍼먼트 대표), 김예원(MEV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기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최용준(한동대 교수)

### 사무국

국장 안선자 실장 방윤미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묵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줌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VIEWtiful.ca 참고)
-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지도자 과정 : 7기 기독교 세계관교육지도자 기본과정 & 6기 기독교 세계관교육지도자 강사과정 진행 중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과정 :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진행중'
  - 대학 강의 : 아신대 : <기독교 세계관>, <철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 평택대 MTS :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코칭>, <기독교 철학>, 평택대 신학과 : <기독교 사상이 탐색>, <기독교 문화관> 진행 중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6년 기독교 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수시모집) : 기독교 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재를 위한 '7기 기독교 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6기 기독교 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 캠프(6월 예정) : 프란시스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출판 계획 :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부모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침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꿈이 뭐예요?>
-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 2026년도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살아있는 뇌, 변화하는 뇌〉 신경재활 전문의 박시은 지음 | 256쪽 | CUP

“뇌를 이해하는 순간 삶이 보인다!”

“뇌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다!”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수정되고, 다시 연결되는 살아 있는 변화의 현장이다.”

뇌를 “결정론적 기관”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뇌과학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회복되며 성장하는가를 임상 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풀어낸 교양 뇌과학서다. 특히 본서는 뇌과학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자기계발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 회복, 책임,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다. 뇌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뿐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고민하는 교육자, 상담가, 의료인, 그리고 인간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2026년 2월, 2026년 3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2월	2026년 3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2월	2026년 3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1,920,000	1,6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820,000	610,000		기타급여	1,150,000	400,000
	일반회비	3,810,000	3,975,000		소계	6,00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250,000	3,3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651,670	0
	월드뷰후원금	0	48,000		사무실관리비	944,319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37,079	155,753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0	6,800
	VIEW후원금	960,000	960,000		소모품비	75,380	28,5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86,700	0
	월보구독료	275,000	465,000		식비	279,600	330,2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120,00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25,820	525,820
	기타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예수금 지출액	788,310	468,430
			회의비		118,000	60,000	
			회계용역비		55,000	385,000	
			여비교통비		4,800	0	
			서무비		55,000	96,040	
			기타(지급수수료)		2,034,571	341,273	
			소계		6,195,479	2,957,046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691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841,750	891,75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01,475	951,47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939,12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345,68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15,100	458,500
	예수금 수입액	486,980	486,980		소계	15,100	3,743,300
	임차보증금 환급	12,755,392	123,288	기타	세금	0	0
			잡비		30,000	0	
소계	13,242,372	611,959	소계		30,00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200,000	200,00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200,000	2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4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350,00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계재료	0	2,410,0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0	0
	소계	490,000	2,530,000		소계	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46,165	1,073,33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73,335	972,100
	전월 이니시스입금	330,000	12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20,000	30,000
	소계	1,276,165	1,193,335		소계	1,193,335	1,002,100
	당월 수입액	26,103,537	15,423,294		당월 지출액	14,540,389	14,108,921
	전월 이월액	13,640,689	25,203,837		차월 이월액 (잔액)	25,203,837	26,518,210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026년 2월)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셋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영주, 김정명,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연무, 최원길,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연, 김영호, 김용서,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선, 김은덕, 김재완, 김재정, 김재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루지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규,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중국,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성호, 오의석, 오주희, 유기남, 유상찬,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종삼,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근,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주성탁,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민, 황기철, 황성연, 황세환,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김승택, 김준원, 박상근, 2만 강용란, 고선욱, 김보경, 김용서,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백중국,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병주,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호, 2만5천 한운식, 3만 강영태, 고세일, 김경민, 김두환, 김예원, 김용봉, 김재덕, 김정일,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전상홍, 전주람, 정민, 최동진, 최용준, 하광민, 황정진, 황혜원, 4만 김호수, 문석윤, 우병훈, 5만 강다열, 강연정, 구준호,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석중준, 송중철, 안경상, 엄중용, 7만 김경모, 10만 김중우, 김지원, 박문식,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원철, 이상현, 장수영, 11만 오지서, 12만 김민철, 박정식, 박지희, 최태연, 최홍영, 15만 최현일, 120만 유재봉,

계 7,935,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인 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흰돌 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11,235,000원

## 회원후원

(2026년 3월)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셋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연무, 최원길,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용재, 고철용, 곽도훈,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미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연, 김영호, 김용서,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선, 김은덕, 김재완, 김재정, 김재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루지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규,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중국,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성호, 오의석, 오주희, 유경상, 유기남, 유상찬,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종삼,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근,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민, 황기철, 황성연, 황세환,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김승택, 김준원, 박상근,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서,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백중국,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병주,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호, 하태실, 한동민,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윤지, 류동규, 문준호, 박기모,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집지협회, 전상홍, 정민, 조현우,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김주경, 석중준, 송중철, 신동진, 양정윤, 이정미, 정강희, 허승근, 8만 정이래, 10만 박문식, 박영주, 손봉호, 신영순, 윤원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이수진, 최태연, 15만 최현일, 100만 정희영,

계 7,340,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서울현영대학교도서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도서관,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 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인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 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흰돌교회, 10만8천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15만 삼일교회, 2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628,000원

전체 10,968,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편집위원 소개

<b>발행인</b>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b>편집장</b>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b>편집위원</b>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삿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b>편집실무자</b>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삿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 AI시대 창조론 토크아보기

2026. 5. 30(토)

12:30 - 18:00 전체일정

10:00 - 11:30 대학원생 분과

장소

고려신학대학원 정암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개회식 12:30 - 13:00

주제강연 13:00 - 15:30

주제강연 사회 김철수 교수 (조선대)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양승훈 총장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EMCU)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검토

정대경 교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종교와 과학

AI 시대, 유전자 기원의 난제에 도전하다  
: 논쟁에서 검증으로

김아람 교수

한동대 생명과학부

▶ 패널토의 주제 강연자 전원 · 이윤석 박사 · 차수진 교수 · 강윤희 교수

서울기독교세계관  
연구원 원장

한양대  
류마티즘연구원

백석대  
컴퓨터공학부

리셉션 15:30 - 15:50

모든 학자, 연구자, 학생,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나눔의 장

일반주제 분과발표 16:00 - 18:00

경제/경영, 인문학, 교육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세계관, 보건/의료, 공연/예술, 학제간연구

일반주제 분과발표 신청안내

▶ 2026. 5. 8.(금) 신청 및 요약본 마감

▶ 2026. 5. 13.(수) 논문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6춘계학술대회등록](https://bit.ly/2026춘계학술대회등록)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mailto: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worldview.or.kr](http://worldview.or.kr)

